

스페인 북부의 소도시 몬드라곤에 살고있는 알폰소 고로노고이티아(70)노인과 부인 마리아 푸릴리카시온(68)은 일요일이 제일 기다려진다. 제각기 가정을 이루어 독립해 나간 3남1녀가 다니러오기 때문이다. 알폰소의 할아버지때부터 살아온 시내 중심가의 2층집에 단둘이 살고있는 이들부부는 일요일이면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준비를 하느라 아침부터 바쁘다.

미사후 친교의 시간

그러나 자식들과 만나기로 한 곳은 집이 아닌 성당앞 광장. 몬드라곤 사람들은 일요일 정오 미사가 끝난뒤 광장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는 친구들과끼리 어울려 몇차례 술집을 돌며 얘기를 나누는 풍습을 옛날부터 지켜오고 있다. 이를하여 치키테오. 마을 토박이들은 물론 인근 대도시인 빌바로나 비토리아로 나가 살고있는 이곳 출신 젊은이들도 치키테오에 참석하기위해 고향을 찾는다. 그래서 몬드라곤 주민들에게 일요일은 「가정의 날」인 셈이다.

성당주변의 선술집과 바는 바스크의 전통 베레를 쓴 노인들과 청년들로 북적댄다. 치키

사자를 대신해 중재에 나서으로써 훌륭한 해결사 노릇을 한다. 몇해전 큰아들이 이혼을 고집해 나와 사이가 나빠졌을때 그 아이가 속한 콰드리아의 친구들이 매일 저녁 찾아와 나를 설득하더군요. 결국 내가 지고말았지요. 알폰소노인은 치키테오나 콰드리아가 가정과 공동체의 화목을 지켜주는 두 기둥이라고 믿고있다.

알폰소가 50년째 어울려 지내는 콰드리아는 지난 43년 설립돼 오늘날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모체가 된 기술전문학교 동창들,이제는 모두 현장에서 은퇴했고 더러 세상을 떠나기도 했지만 이들이야말로 협동조합의 창시자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신부의 뜻을 받들어 오늘의 몬드라곤을 이룩한 개척자들이다.



1994
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

「세계가정의 해」엠블럼

창밖에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알폰소(오른쪽)집에 아들 머리가 찾아와 앉소 하고 있다.



주민 상호부조-가족유대 전통

組合만들어 마을운영...「완전고용」풍요일귀

테오에서 같이 어울리는 동아리를 「콰드리아」라고 하는데 이는 대개 나이가 비슷한 한동네 친구나 학교동창들간에 이루어지며 직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수십년씩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콰드리아』멤버들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때 당

몬드라곤이 위치한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지방은 정치경제적으로 스페인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갖고있다. 바스크인들은 네모진 턱, 넓은 이마, 청회색의 눈을 갖고있으며 스페인어는 물론 유럽의 어떤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에우스케라어를 쓴다.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남부에 많이 살고있는 바스크인들은 또 개인주의적인 서구인들과는 달리 가족간의 유대와, 나아가 마을주민들간의 상호부조를 유난히 강조한다. 가문과 핏줄을

중시하는 것도 우리네 전통에 가깝다. 프랑스 국경에 인접한 스페

가와 노동계급,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대립이나 빈부의 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전체가 본부를 중심으로 그물처럼 연결된 1백1개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협동조합공동체인 셈이다.

“가난한 광산촌”옛말

알폰소노인 일가도 협동조합과 떼려야 뗄수 없는 인연을 맺고있다. 알폰소 자신은 몬드라곤 최초의 협동조합인 울고를 기술학교 동창생 4명과 함께 지난 56년 창설했으며 울고와 카자 라보랄 노동인민금고의 이사장을 지냈다. 큰아들 호세 마리아(39)는 공작기계제조회사인 아라사테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의사인 둘째딸 안나 이사벨(37)은 인근도시 빌바오에 산다. 토목기사인 셋째 아들 알베르토(35)는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LKS협동조합에서, 막내 타비에르(33)는 아버

가문·혈통중시...바스



막장에서 일급노동자로 연명하고 있겠지요. 지금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전체가 실업과

소비자협동조합 에로 스키매장의 내부. 스페인 유통업체에서 3



유엔
실정
가정
의해

지구촌가족
이렇게살아요

〈12〉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공동체

미사우 친교의 시간

그러나 자식들과 만나기로 한 곳은 집이 아닌 성당 앞 광장. 몬드라곤 사람들은 일요일 정오 미사가 끝난 뒤 광장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몇 차례 술집을 돌며 얘기를 나누는 풍습을 옛날부터 지켜오고 있다. 이름하여 치키테오. 마을 토박이들은 물론 인근 대도시인 빌바오나 비토리아로 나가 살고있는 이곳 출신 젊은이들도 치키테오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찾는다. 그래서 몬드라곤 주민들에게 일요일은 「가정의 날」인 셈이다.

성당 주변의 선물집과 바는 바스크의 전통 베레를 쓴 노인들과 청년들로 북적댄다. 치키테오

조합의 모체가 된 기술전문학교 동창들.이제는 모두 현직에서 은퇴했고 더러 세상을 떠날기도 했지만 이들이야말로 협동조합의 창시자 호세 마리아 아리스텐디아리에타신부의 뜻을 받들어 오늘의 몬드라곤을 이룩한 개척자들이다.



1994 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

「세계가정의 해」 엠블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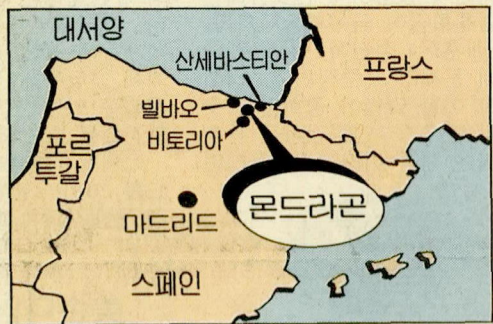
몬소(오른쪽) 집에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 담소



주민 상호부조-가족유대 전통

組合만들어 마을운영...「완전고용」 풍요일귀

테오에서 같이 어울리는 동아리를 「파드리아」라고 하는데 이는 대개 나이가 비슷한 한 동네 친구나 학교동창들간에 이루어지며 직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수십년씩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파드리아』 멤버들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당



몬드라곤이 위치한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지방은 정치경제적으로 스페인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갖고있다. 바스크인들은 네모진 턱, 넓은 이마, 청회색의 눈을 갖고있으며 스페인어는 물론 유럽의 어떤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에우스캐라어를 쓴다.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남부에 많이 살고있는 바스크인들은 또 개인 주의적인 서구인들과는 달리 가족간의 유대와, 나아가 마을 주민들간의 상호부조를 유난히 강조한다. 가문과 핏줄을 중시하는 것도 우리네 전통에 가깝다.

프랑스 국경에 인접한 스페인 북부의 항구도시 산세바스티안에서 남서쪽으로 1백km, 바깥세상으로 통하는 길이라곤 좁디좁은 1차선 꼬부랑도로뿐인 가난한 광산촌 몬드라곤이 30여년만에 고층아파트와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특유의 문화와 협동조합 덕분이었다. 몬드라곤에선 대학과 은행 병원조차도 협동조합으로 운영될만큼 협동조합은 일상생활 그자체다. 3만 주민들은 어느 특정조합의 조합원이면서 조합이 세운 공장이나 회사 슈퍼마켓의 공동출자자이자 근로자이다. 그래서 몬드라곤에선 자본

가와 노동계급,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대립이나 빈부의 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전체가 본부를 중심으로 그물처럼 연결된 1백1개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협동조합공동체인 셈이다.

“가난한 광산촌” 옛말

알폰소노인 일가도 협동조합과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을 맺고있다. 알폰소 자신은 몬드라곤 최초의 협동조합인 울고를 기술학교 동창생 4명과 함께 지난 56년 창설했으며 울고와 카자 라보랄 노동인민금고의 이사장을 지냈다. 큰아들 호세 마리아(39)는 공작기계 제조회사인 아라사테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의사인 둘째딸 안나 이사벨(37)은 인근도시 빌바오에 산다. 토목기사인 셋째 아들 알베르토(35)는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LKS 협동조합에서, 막내 타비에르(33)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노동인민금고에서 일한다.

알폰소의 세아들은 중고교때 알레코프학생협동조합에서 앞선해준 학교근처의 공장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학비를 벌었다. 큰아들과 셋째아들은 아버지가 나온 기술전문학교의 후신인 에스쿠엘라 폴리테크니카공대를 졸업하고 프랑스를 루즈에서 유학도 했다. 이 공과대학도 학부모연합회의 출자금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의 수익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없었더라면 할아버지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도

가문·혈통중시...바스크文化 고수



막장에서 일급노동자로 연명하고 있었지요. 지금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전체가 실업과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몬드라곤은 협동조합이 계속 결성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업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큰아들 호세 마리아가 협동조합 칭찬만 늘어놓는다 싶었는지 셋째아들 알베르토는 아내와 형의 눈치를 보며 엄살섞인 불만을 늘어놓는다.

『조합에서 여자들을 남자와 똑같이 대우하는 바람에 여자들이 드세지기만 했어요. 경제력이 생겼다고 조금만 마음에서 놓이지 않으면 이혼부터 하려들고... 국교가 카톨릭이라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최근 4년동안 주변에서 이혼한 부

소비자협동조합 에로 스키매장의 내부. 스페인 유통업계에서 3위업체인 에로스키는 스페인 전역에 30개 하이퍼마켓과 1백88개 슈퍼마켓을 갖고있다.

부가 34쌍이나 됩니다.이게 다 조합 탓이에요』

“이혼율 증가”한숨

알베르토의 아내 이즈야르(34)는 협동조합본부에서 교육 프로그램개발업무를 하고있으며 막내 타비에르의 아내 로사(30)는 기혼여성을 위한 협동조합 아우소라군에서 하루 4시간씩 학교급식에 필요한 음

유엔
설
정
가
정
의
해

지구촌가족
이렇게살아요

〈12〉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공동체

식을 만들고 있다. - 자식과 며느리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대견스럽게 여긴다는 알폰소는 이렇게 말했다. 『협동조합운동에 일생을 바친 것은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을 자식대까지 물려줄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내자식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후손들이 더불어 잘 살도록 말이지요.』 (몬드라곤=金世媛)